

한·미FTA대책위, 8개분과 구성 대책마련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보장대책 강구해야

△종돈 △사료 △질병 △사양 △시설 △분뇨 △유통 △정책 등 전문가그룹 본격 가동



▲ 한·미 FTA 타결을 계기로 국내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위한 한·미 FTA 대책위가 본격 가동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로 국내 양돈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미 FTA타결을 계기로 국내 양돈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을 위한 한·미 FTA대책위가 본격 가동되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4월 12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미 FTA긴급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동환 양돈협회장·노경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장)를 갖고 △종돈 △사료 △질병 △사양 △시설 △분뇨 △유통 △정책 등 8개 분과의 전문가그룹을 가동,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양돈협회는 “정부가 국내 양돈산업이 FTA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확실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미 FTA

▶ 한·미 FTA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20~21일 양일간 포천 베어스타운에서 한·미 FTA 대책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에 이어 한·EU, 한·중 FTA 추진과 DDA 협상이 다가오므로, 이번 한·미 FTA 피해보전 특별법 제정시에 양돈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장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중돈장의 돼지 소모성질환 청정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돼지열병 청정화를 통한 대일수출 재개 △돈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소모성질환 근절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통한 안정적 사육환경 조성 △후계 양돈인력 양성 △농장 병리진단 체계 표준화 및 병리진단 결과 공유를 통한 소모성질환 근절 △돈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및 품질향상 장려금 제도 부활 △양돈자조금 매칭펀드 지원확대 △국제 사료가격 폭등에 대비한 곡물안정기금 확보 △전 양돈농가 HACCP 인증비용 지원 △도축장 및 유통시설 집중화 △양돈관련 각종 규제철폐 및 세제지원 △한계농장에 대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돈·사료·질병·사양·시설·분뇨·유통·정책 등 8개 분과로 구성된 한·미 FTA 대책위원회는 산업분야별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나 비용과 지원대책을 보장하기 위해 4월 20일~21일 한·미 FTA 대책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해 분과별 대책안을 구체화했다.

노경상 한·미 FTA 대책 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의 대책마련은 국회비준시 정부가 꼭 들어줘야 할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하겠다는 점에 중점될 것이라면 소위원회 워크샵을 통해 분야별 세부대책 마련을 통해 체계적인 대책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품질을 기반으로 한 생산이력제와 원산지 표시제 도입

전문가들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력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소비자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국산 돼지고기의 품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이 마련돼도 품질이 나쁘면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생산이력제와 원산지표시제 도입은 국산 돼지고기와 수입 돼지고기와의 차별화를 이루는 필수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정찬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는 “소비촉진에 있어 전략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비홍보를 위한 자조금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출국에 대한 감시체제도 중요하므로 원산지표시 등 제도구축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위형 미트비즈니스 컨설팅센터 소장은 “현재의 돼지고기 품질 수준으로는 미국은 물론 유럽과 같은 양돈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높다고 장담하기 힘들다”며 “양돈농가에서는 무엇보다도 돼지고기 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산 돼지고기 품질 향상을 위해서 A, B 등급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산 돼지고기의 차별화 방안과 함께 원산지표시제와 같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표시제 시행에 앞서 생산이력제도의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높다. 원산지표시제만 시행할 경우 현재 국내의 기술로는 수입 돼지고기와 국내 돼지고기를 구별할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우의 경우 DNA 검사로 수입육과 한우의 구별이 가능하지만 돼지고기는 DNA 검사로 이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되어 생산이력제 논의가 진전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앞서 개체별 생산이력이 불가능하다면 돈군 단위나 농장 단위의 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절감 대책 마련돼야

양돈농가들은 현재 바닥으로 떨어진 생산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농장마다 상재돼 있는 각종 소모성질병의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

최근 극심한 소모성 질환으로 인해 농가들은 질병 막기에 급급하다 보니 품질관리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인 만큼 이번 기회에 양돈산업의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통한 농장의 현대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실천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개진되고 있다.

신일식 유로하우징대표는 “시설의 현대화 없이는 도저히 생산성에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시설과 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준비를 5년 안에 끝내야 한다.”며 양돈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총체적인 시설개선이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이에 정종극 양돈협회 부회장은 정부는 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해 농장의 질병 감염 및 폐사율을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보다 농가들은 실질적 지원과 혜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과거 시설지원을 받은 농가의 경우 담보 능력이 없거나 이중지원이라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시설개선 사업 지원이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과 부합한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있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두환 진주산업대학교 교수는 “FTA에 대응하기 위해선 가축분뇨 자원화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액비자체 냄새 저감뿐



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살포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퇴비 또한 수분함량에만 집중하게 되면 퇴비 질이 떨어진다. 농가들이 선호하는 퇴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여기에 사료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사료값 인상에 따른 농가의 생산비 상승요인을 감소시키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는 “상대적으로 좋은 원료를 값싸게 공급받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농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받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 연구기관 설립 시급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산업의 총체적인 면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네덜란드 PTC+ 와 같은 해외 양돈전문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양돈인들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네덜란드의 교육기관인 PTC+와 같은 전문교육기관과 덴마크의 육류연구소인 DMRI와 견주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연구기관 설립 필요성이 더

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들 기관의 설립이 불가능하다면 국내에 분산돼 있는 연구 및 교육기관을 통합해 현재의 난국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진길부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은 “10조에 이르는 농업 최대 생산액을 유발하는 국내 육류산업에 이 같은 전문 연구기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산단계에 머무르지 말고 육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과 고민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 교육기관의 존재는 필연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린 맥스피드 대표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경영주 교육 등 인재발굴을 위해 협회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외에 농장 그대로의 돈육 품질 유지를 위해 도축장 단계별 지원도 필요하다”고 교육과 인력양성에 양돈산업의 미래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FTA 체결로 국내 양돈산업은 수입 쇠고기와 수입 돼지고기라는 두개의 큰 산과 싸워야 한다”며 “정부는 이러한 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양돈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장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돈**